

'우울한 광주' 우울증 환자 5년 새 29% 급증

광주·전남 우울증 진료 4만명...국가·사회적 대책 시급

전국 우울증 환자 5년 새 20대 97%·10대 78% 폭발적 증가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4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새 광주에서만 우울증 환자의 수가 28%나 증가하는 등 우울증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태규(바른미래당)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우울증 환자는 2만 2144명으로 5년 전인 2014년 1만 7187명보다 28.8% 늘었다. 전남에서도 지난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1만 9401명으로 5년전(1만 5775명)보다 22.9% 증가했다.

전국 우울증 환자는 75만 1930명으로 2014년 58만 8155명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9월 기준 환자 수는 68만 2631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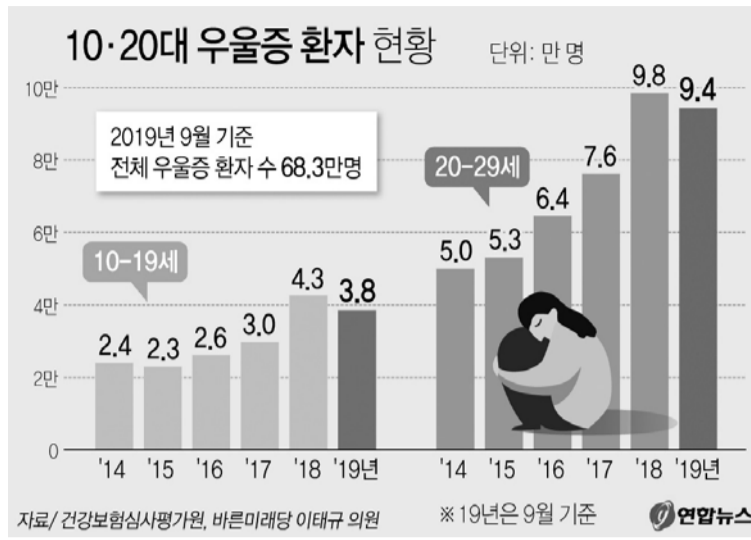
전국적으로 20대와 10대 우울증 환자가 크게 늘었다. 20대 우울증 환자는 2014년

4만 9975명에서 지난해 9만 8434명으로 97% 급증했으며, 10대 우울증 환자도 2014년 2만 3885명에서 지난해 4만 2535명으로 78%나 급증했다.

우울증 환자 증가에 따라 진료비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광주지역 우울증 진료비는 106억 3491만원으로 2014년 73억 5888만원 대비 44.5% 증가했다. 전남도 2014년 59억 6652만원에서 지난해 72억 7373만원으로 21.9% 증가했다.

조울증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조울증 환자는 2014년 7만 5616명에서 지난해 9만 429명으로 24% 증가했다. 올 9월까지 9만 3573명에 달해 이 추세라면 올해 조울증 환자는 최초로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전국적으로 청년실업문제와 이성문제 등으로 마음의 병이 생긴 20대와 10대 우울증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조울증 환자도 2014년 1만 1844명에서 지난해 1만 7458명으로 47% 증가했으며, 90세 이상 고령의 조울증 환자가 지난해 6885명으로 2014년 3339명 대비 2배 이상 뛰었다.

최근 우울증 등으로 인해 유명 연예인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청소년들에게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우울증에 대한 국가

적 대책과 함께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 복지 전문가는 "20대 우울증·조울증 환자의 급증은 개인적 문제보다는 학업, 취업 등 사회구조적 환경에서 비롯된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국가적 대책과 함께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즐겁게 놀며 주거빈곤 아이들 돕는다



(주)상상오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광주시립미술관 잔디광장에 설치한 '주거빈곤 아이들을 위한 기부방방'에서 어린이들이 뛰놀고 있다.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 제공>

광주일보·초록우산재단 '집다운 집으로' 캠페인 (주)상상오 후원금 전달

"즐겁게 기부하며 주거빈곤 아이들을 돕습니다." 최근 (주)상상오는 최근 주거빈곤 아동들을 위해 광주일보와 초록우산 광주전남지역본부가 공동 실시하고 있는 '집다운 집으로' 캠페인 후원금을 전달했다.

(주)상상오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기부·기부방방' 캠페인 광고에서 모티브를 얻어 광주시립미술관 잔디광장에서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주거빈곤 아이들을 위한 기부방방'을 설치했다.

'기부방방'은 지폐(1000원권)를 동전으로 교환하고, 주머니에 넣은 뒤 '방방' 기구에 올라가 주머니에 든 동전이 다 쏟아질 때까지 뛰는 기부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광주지역 주거빈곤 아동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임양선 (주)상상오 대표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대상,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언제든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 창조 콘텐츠 기업 (주)상상오는 사회적기업으로 2014년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재능 및 물품기부를 꾸준히 해 오고 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시시각장애인복지관은 최근 시각장애인 6명과 함께 해남 두륜산과 대흥사 등에서 지리역사탐방을 실시했다. <광주시시각장애인복지관 제공>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대국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 복지부

"저출산·고령화 대책, 당신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대국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모한 아이디어를 내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시 활용할 계획이다.

누구나 공모전에 응모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를 저출산(결혼, 임신·출산, 보육·교육, 양육, 영유아 건강·의료, 기타)과 고령화(일자리·건강·노후대비·대인관계·기타)로 나누어 자유롭게 제안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대상 1편, 금상 2편, 은상 5편, 입상 15편 등 총 23편의 수상작을 선정한다. 대상·금상·은상 수상자에게는 장관 상장을 수여하고, 전체 수상자에게 상금(대상 100만원, 금상 각 50만원, 은상 각 30만원, 입상작 각 10만원)을 준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식 사회관계망(SNS) 채널과 네이버 포스트,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선작은 오는 18일에 발표된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시 동구 '여성인권을 켜다' 전시회·집담회 개최

광주시 동구가 광주대표 성매매집결지인 대인동에서 '여성인권을 켜다'를 주제로 전시회와 집담회 등을 개최한다.

3일 동구에 따르면 오는 12일까지 과거 성매매업소였던 일명 '유리방'을 임대해, '대인동 인권ON(온)돌방'을 주제로 전시회를 진행한다. 동구는 성매매 역사를 한 눈에 들여다보는 아카이빙 전시와 함께 여성취업공간이었던 업소 불건물들을 전시, 여성들의 인권을 되돌아 볼 수 있게 했다.

6일 동구청 3층 상황실에서는 유관기관과 여성인권센터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19년 하반기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매매집결지 실태보고와 함께 도시재생적 접근방향을 논의, 집결지 폐쇄 실천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주민들과 함께하는 '집담회'는 10일 오후 3시 대인동 유리방 전시관에서 열린다. 김란희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푸른꿈터' 소장이 진행자로 나서 대인동의 역사

와 추억, 시대의 아픔 그리고 밝은 미래를 주제로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동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성매매집결지라는 대인동의 불명예스러운 상처를 치유하는 한편 주변 상권회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지난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제정 이후 대대적 단속 결과 한국 사회에 성매매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음성적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대인동이 성매매집결지라는 오명을 벗고, 문화와 예술이 꽃피우는 여성인권마을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매매집결지'란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업소가 다수 밀집한 지역을 뜻한다. 현재 롯데백화점에서 금남로5가 등 대인동 일대가 여성가족부 지정 성매매집결지로 등록돼 있으며, 현재 4개 업소 등이 불법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오매 무장애 지리역사탐방이여라'

광주시시각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답사 가능 관광지 개발

광주시시각장애인복지관이 내년 10월까지 지리역사탐방을 통해 장애인도 답사가 가능한 역사문화 관광지 개발 등을 위한 프로젝트인 '오매 무장애 지리역사탐방이여라'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시각장애인의 독립보행을 위한 공간인식능력 향상과 맞춤형 관광 체험 및 정보 제공으로 무장애 관광 기반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오매 무장애 지리역사탐방이여라'는 GKLS사회공헌재단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며, 향후 1년간 월 1회의 무장애 지리역사탐방을 비롯한 무장애관광 로드맵 구축을 위해 기초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3일 광주시시각장애인복지관에 따르면 최근 시각장애인 6명과 함께 해남 두륜산과 대흥사 등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했다. 시각장애인들은 두륜산 케이블카

탐승장에서부터 전망대에 이르기까지 경사로와 엘리베이터, 계단 등의 편의시설을 확인해보고, 정상에서는 영암 월출산과 강진 주작산 등의 풍광을 즐겼다. 대흥사도 울창한 숲길과 주변 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며 대흥보전까지 둘러보고, 주차장과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도 직접 이용했다.

광주시시각장애인복지관은 기초조사(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이용방법, 체험거리)를 통한 광주·전남지역 시각장애인 관광지를 개발하고 온라인 홍보활동과 책자 발간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 및 무장애 관광 로드맵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새로운 세계를 보다
신세계안과

스마일·관식·관색·노안·백내장 수술

신세계안과 1566-9988

옛 밝은광주안과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